Open Doors

05
2022
VOL.241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4)

박해와 선교현장
중앙아시아(Central Asia)

현장스토리1
이란, "오직 기도로 감옥에서 살아남다"

현장스토리2
중앙아시아, "복음의 문을 위해 박해의 문을 열다"

TALK
카톡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역사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제 1동인과 제 2동인)

노창영 목사
(개봉교회 담임목사)

여러 해 전에 제가 섬기는 개봉교회의 협력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영국의 WEC본부의 정기철 선교사님이「뉴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세계역사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인 역동과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뉴스의 이면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세계적인 선교역사의 시각으로 조명한 아주 독특한 책이다.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 움직이는 두 가지 동인(動因)을 보는 역사적 통찰력(Historical Insight)이 있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제 1동인(The First Motive)과 제 2동인(The Second Motive)이 있다. 제 2동인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환경, 인물, 사건, 관계들로서 역사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동인이다. 제 1동인은 이같은 2차 동인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비가시적인 동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성령의 통찰을 소유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은 제 2동인만 보이고, 제 2동인과 싸우고, 제 2동인과 씨름한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이 모든 제 2동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제 1동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창세기의 요셉은 아버지의 성실한 재산과 인력관리, 형들의 미움, 17세에 은 20냥으로 애굽에 팔려감,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형통함,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오해로 인한 억울한 감옥 생활 등을 하게 된다.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하면서 국가경영과 대처법을 실행하도록 제시하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그의 나이 39세에는 흉년 중에 양식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요셉은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고 간증하면서 제 1동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통찰력을 보여준다(창45:5-8).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육체의 눈에 안 보이시는 제 1동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아하수에로왕의 즉위 3주년 축하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 에스더의 왕비취임, 하만의 살해 음모, 왕의 금홀 사건, 모르드개의 급부상, 부림절의 승리와 하만의 패배의 모습들 속에서 제 2동인 뒤에 역사하시는 제 1동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읽게 된다.

구약 사사기에 나타난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메소포타미아, 모압, 미디안, 암몬, 블레셋 같은 제 2동인인 이웃 국가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옷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같은 사사를 통한 구원과 평화 시대의 도래 등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제 1동인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통찰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현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열강들의 모습속에서 목회자, 통일신학자, 북한선교학자,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제2 동

인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뒤에서 역사하시는 제 1동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경건과 회개와 기도와 성경적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으로 회귀해야 한다. 가시적인 제 2동인 뒤에서 역사하시는 비가시적 제 1동인의 손길을 보는 통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 사건, 사람, 유행에 요동치지 말고 역사의 제 1동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4)"

08 박해와 선교현장
- 중앙아시아_투르크메니스탄,우즈벡,카자흐,타지키스탄

14 현장스토리1
- 이란, "오직 기도로 감옥에서 살아남다"

18 현장스토리2
- 중앙아시아, "복음의 문을 위해 박해의 문을 열다"

22 Heart to Heart
- 오픈도어기도모임 &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23 희망의 선물

24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2022년 05월호 | 통권 241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욱,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샛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3)

출소 이후의 삶: 감옥에서 만난 작은 예수 루디아를 따라

마리아 자매

출소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다. 날카로운 보안원의 명령 없이도 눈이 저절로 떠졌다. 내 옆에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참 어색했다. 점심때 즈음 되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동네 사람들과 남편의 친구들이 우리집을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출소를 축하한다며 모두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참팻기(팥) 한 자루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보양식을 해먹으라며 토끼를 잡아오고, 어떤 이는 두부를 한 솥 삶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수탉을 잡아왔다. 사치스럽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풍경이었으나 출소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참 고마웠다.

<토끼고기를 각종 재료와 함께 푹 고아 먹는
북한 서민의 대표 보양식, '토끼곰'>

이튿날 담당보안원의 호출로 동네 보안원실에 불려갔다. 웬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며 보안원실에 도착했는데 기존에 내가 알던 보안원이 아닌 새로운 젊은 사람이 앉아있었다. 나를 보며 참 까탈스러운 어조로 "왜 중국에 갔었는가"라고 물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이 나라에 살 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겠구나. 중국으로 탈북하여 수감되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겠구나 싶었다. "내가 가고 싶어 갔겠는가? 살고 싶어서 갔다."며 대들자 보안원은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안착하며 잘 살으라", "문제가 있으면 말하라"하고 내뱉었다. 그러고보니 내가 출소했다는 사실이 나와 관련된 모든 조직 가운데 일괄적으로 포치(공지)가 되는 것 같았다.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는 공민증을 버리면서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더니 출소하고 난 후에는 잘 적응하며 사는지 감시를 받는 나의 신세가 참 처량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그동안 악취가 진동하는 감방에서 위생관념 없이 생활하다 보니 온 몸에 똥독이 들었는지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았다. 수 개월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영양 부족으로 건강을 전혀 돌볼 수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골골대는 나를 보던 남편은 없는 살림에 의사를 불러주었지만 그 의사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저 며칠동안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으라고 진단해주었다.

<2000년대 초 북한의 지방 병원에서 링거병이 없어 맥주병을 소독하여 수액을 투여하는 모습>

그러나 마냥 누워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집안에 입 하나가 늘었으면 그만큼 뭐라도 살림에 보태야 하지 않겠냐는 죄책감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모습을 나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더러움에 찌든 교도소에서도 어떻게라도 일하는 옷, 먹을 때 입는 옷, 잘 때 입는 옷을 갈아입어 가며 위생에 신경쓰려고 몸부림쳤는데, 출소하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내가 먼저 위생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참 울화통이 치밀었다. 그래도 일단은 얼른 일어나 밀린 설거지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링거를 맞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였다.

막상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자 일이 끝나지가 않았다. 내가 살던 곳은 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쓸 수 없었기에 매일 아침 집 앞 산에 올라 그 날 쓸 물을 직접 길어와야 했다. 세탁기는커녕 변변한 도구 하나 없이 손으로 다섯 식구 옷을 매일같이 빨았다. 추위를 쫓고자 장작불을 때면 파리가 그렇게 달려들어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파리를 잡았던 것 같다. 심지어 우리 집에는 파리채도 없어 옆집에 파리채를 빌려다가 잡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나 없는 동안 남편이 살림을 늘려 놓아 키우게 된 돼지 세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리고 강아지 여덟 마리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 하루 종일 밥을 주고 똥을 치웠다. 돼지가 먹는 돼지죽은 또 어찌나 그리 손이 많이 가던지 옥수수가루를 물에 펄펄 끓여서 술 누룩을 키워 집에서 소주를 피운 후 그 찌꺼기를 모아서 돼지들을 먹였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다른 집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다가 돼지밥으로 주었다.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가축이야말로 살림 밑천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다. 매일 불을 때고 매일 술 죽을 끓이니 여기가 교도소만 아니었지 고된 노동은 여전했다. 출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는 나의 소소한 바람이 무색했다. 허리를 구부린 채 집안일을 계속 하다 보니 예전에 통나무에 맞아 약해진 허리에 병이 도져서 한동안 물도 못 기를 정도로 아팠다.

<우물에서 물을 긷는 북한 사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며 다른 마을에 있는 시장에 가자고 했다. 동네에서 옷을 살 수도 있었지만 시외로 나가서 예쁘고 딱 맞는 옷을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내가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에게 그동안 예쁜 옷 한 벌 사주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되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갓 결혼을 하자마자 생활이 아주 어려워져서 첫 애를 출산하고도 먹고 싶었던 꿀 한 번을 못 사 먹었다. 이번에는 마음먹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옷과 신발을 마음에 드는 걸 사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웠다. 시외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차 위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화물차 위에 앉아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몇 시간을 이동하면 큰 동네가 나왔다. 그 동네의 큰 시장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다.

<화목과 사람을 실은 북한 화물차>

나 스스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옷을 사는 것도 참 좋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그보다 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느새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중국에 갈 때 코흘리개였던 우리 아이들은 내가 출소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는 어엿한 학생이 되어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때마침 시장 근처에 아들 담임선생님이 살고 계셨기에 시장에서 내 옷을 사면서 아들 담임선생님 선물도 챙겨 댁을 방문하였다. 담임선생님은 나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아들 칭찬을 늘어놓으셨다. 우리 아들은 고집도 세고 남자다운 개구장이라고 하셨다. 중국에 있을 적에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학부모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아 마음이 벅찼다. 선생님 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참 내가 비로소 우리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감격적인 만남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근처 시동생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얼마 안 있어 남편은 나에게 친정 어머니를 뵙고 오라고 권했다. 사실 진작에 찾아뵈었어야 했지만 건강이 안 좋고 집안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그러지 못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은 채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친정집을 향했다. 어머니는 맨발로 나와서 울면서 나를 맞아 주셨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미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머니의 늙은 얼굴에 퍼렇게 멍이 드셨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얼굴이 그렇게 상하셨다는 것이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보호자도 없이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이 한없이 죄송스러웠다. 나는 내 가정과 살림이 있어 어머니 곁에 항상 붙어있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이틀 밤 동안 도란도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며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먹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집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출소한 후 첫 해는 참 복잡하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나마 겉으로는 사람 사는 것 같았으나 나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었다. 교도소에서 얻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그대로 가진 채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웠다. 그 와중에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로 나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출소 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는 정말 쉴 수가 없었다. 그나마 전기가 없는 깜깜한 밤이 되면 모든 일이 강제로 끝마치는 것이 참 애석하면서도 좋았다. 밤에는 정말 조용한 바람소리를 듣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방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다. 함께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이 친구들이야말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지였기에 그들의 연락은 마치 마른 땅의 단비같이 반가웠다. 그렇지만 반가움도 잠시, 그 친구로부터 루디아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야 말았다. 루디아 선생님은 감방 안에서도 주변의 만류와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다가 결국에는 발각되어 '기독교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한다. 이후 그 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 길이 없다.

감옥에서 만난 루디아 선생님은 내가 중국에서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다. 그분과 함께 했던 감옥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수감동료의 증언을 들으며 나는 삶과 죽음을 바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루디아 선생님이 참 많이 생각났다. 그분을 이북에서도 가장 험한 곳에 두고 나 혼자 여기 한국 땅에 온 것이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이렇게 삼시 세 끼 밥을 먹고 더운 물에서 샤워를 하며 자유롭게 호흡하는 한국 땅의 생활이 어쩔 때는 나에게 과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루디아 선생님이 나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던 신앙생활의 표본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며 나도 누군가의 루디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과 기도를 한다. <계속>

기독교 박해지수 **21위**

우즈베키스탄

폭력과 압력의 수준

구분	영역	점수
폭력지수	폭력영역	1.7
압력지수	개인영역	14.9
	가정영역	12.7
	공동체영역	14.1
	국가영역	11.8
	교회영역	15.6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Shavkat Mirziyoyev)
인구: 33,649,000 명
기독교인 수: 349,000 (1.0%)
주요종교: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5년임기, 독재정권)
주 박해 요인: 독재정권, 이슬람의 압박, 가족의 박해

카자흐스탄

기독교 박해지수 **47**위

폭력과 압력의 수준

		영역	점수
폭력지수		폭력영역	1.7
압력지수		개인영역	13.4
		가정영역	11.6
		공동체영역	11.1
		국가영역	12.6
		교회영역	13.5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Kassym-Zhomart Tokayev)
인구: 18,957,000 명
기독교인 수: 847,000 (25.6%)
주요종교: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5년 임기)
주 박해 요인: 독재정권, 이슬람의 압박, 가족의 박해

기독교 박해지수 45위

타지키스탄

폭력과 압력의 수준

	영역	점수
폭력지수	폭력영역	0.7
압력지수	개인영역	13.8
	가정영역	12.3
	공동체영역	12.0
	국가영역	12.6
	교회영역	13.2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이모말리 라흐몬 대통령(Emomali Rahmon)
인구: 9,657,000 명
기독교인 수: 65,300 (0.6%)
주요종교: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7년 임기)
주 박해 요인: 독재정권, 이슬람의 압박, 가족의 박해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교 박해지수 **25위**

폭력과 압력의 수준

구분	영역	점수
폭력지수	폭력영역	0.6
압력지수	개인영역	14.5
	가정영역	11.3
	공동체영역	13.6
	국가영역	13.3
	교회영역	15.7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정교회와 아르마니안 사도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되어 왔다. 이들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감시당하는 박해를 겪어 왔다 기독교 자료들을 인쇄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제한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사회적 공동체, 그리고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조차 침해당한다. 교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들은 반복되는 경찰의 불시 단속과 위협, 체포와 벌금형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구르방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Gurbanguly Berdimuhamedov)
인구: 6,117,000 명
기독교인 수: 67,300 (1.1%)
주요종교: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7년 임기)
주 박해 요인: 독재정권, 이슬람의 압박, 가족의 박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상황

주종교	지지자 수	비율 (%)
기독교인	67,300	1.1
무슬림	5,920,000	96.8
민족종교인	23,900	0.4
불가지론자	102,000	1.7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던 시기에 독립했다. 방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국가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당제 국가이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끔찍한 강제 노동 교도소 조직을 갖추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종교단체들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엄격한 의무 등록을 요구하며, 국경 내의 모든 교회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종교단체들은 모든 자산, 특히 외국인 자산은 반드시 국가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 받거나 단체 대표가 체포된다.

수니파(Sunni,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가장 세력이 큰 이슬람 종파)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이슬람의 교리보다 민족 전통을 따른다. 70년 동안의 소비에트 연방 시절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신론을 남겼고, 정부는 철저한 세속주의를 추구한다. WCD에 따르면, 이슬람교 다음으로 큰 종교는 불가지론과 무신론인데, 특히 수도 아슈가바트(Ashgabat)와 주요 대도시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 수가 매우 적고, 교단 간 분열과 협력 부족으로 인해 교세가 매우 미미한 상황이며, 정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지역별 박해 상황 변화

정부관료들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권리 침해는 국가 전역에서 발생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향한 가족과 공동체의 박해는 시골지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

러시아 정교회(ROC, Russian Orthodox Church)는 정부가 정한 제한조치에 스스로 적응하며 익숙해진 덕분에 크고 작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교회 예배는 정부에 의해 감시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방해 없이 진행된다. 기독교 자료를 인쇄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국가 정부로부터 종교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가족과 지역공동체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는 침례교, 복음주의권, 오순절 교단이 포함된다. 개종 여부를 떠나서, 이들 공동체들은 종교적 믿음에 대해 가장 심한 수준의 권리 침해를 경험한다. 종교적 권리 침해에는 불시 단속과 위협, 체포와 벌금형이 포함되며, 특별히 교회가 미등록 교회일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독재정권

독재정권 내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종교기관 및 단체만 허용된다. 개신교인들은 정부가 허가한 건축물 밖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정부는 정치적 상황 유지를 위해 개신교인들을 통제와 억제가 필요한 위험요소로 여기고 있다.

가족과 이슬람에 의한 복합적 박해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이들을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는 가족 구성원들과 마을 공동체원들로부터 압력과 물리적 폭력을 쉽게 경험한다. 일부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집에 감금되거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차이

여성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 여성의 법적 보호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이슬람에 넓게 퍼져 있는 문화는 여성을 남성보다 하등하고 남성에 종속적인 존재로 여긴다. 특히 여성 개종자들은 폭력, 감금, 폭언, 협박, 적대, 납치와 강제 결혼 등에 더욱 취약하다. 여성과 소녀들은 성적학대와 강간에 매우 취약한 실태이지만,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이 찍힐 우려, 그리고 신고를 한다 해도 가해자에게 주어질 관용과 면책,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여성 성범죄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 학대는 기독교인 가족과 남편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 납치/유괴
- 강제 결혼
-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육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성폭력
- 언어 폭력

남성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는 가족구성원 전체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며, 두려움과 분노는 물론, 재정적 어려움마저 야기한다.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정보국은 기독교인 남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구실을 찾고 국가 당국은 가족과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남성들을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위협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특히 종교에 관한 교육은 엄격히 제한된다. 군대 의무 복무에 있어서도 남성들은 차별과 적대와 박해를 겪는다. 가정과 지역 공동체 측면에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의 기업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학대, 심문, 위협, 차별, 수치심을 경험하고 폭행을 당한다.

- 기독교 종교 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
- 지역사회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금지
- 직장/취업/사업 영역에서의 경제적 학대
- 벌금부과를 통한 경제적 학대
-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감금 / 가택연금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복무/군인징집
- 여행 금지 / 이동제한 조치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언어 폭력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및 박해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25	68.96
2021	23	70.11
2020	22	70.34
2019	23	68.87
2018	19	68.20

투르크메니스탄의 2022년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2022) 박해지수는 69점으로 2021년 보다 1점 감소하였다. 일부 압력 지표 지수들과 폭력지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상황은 안정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주된 박해 요인인 이슬람과 독재정권의 압박의 영향으로 개인 영역(사생활의 자유)과 교회 영역(종교의 자유)의 압력은 극심한 수준이다. 무슬림 가족 구성원, 친구와 마을 공동체 주민들은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는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제를 가한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 박해의 사례들

2022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리서치 결과, 최소 27명의 기독교인들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폭력 박해 사례들의 대부부은 구타, 협박과 격리와 함께 가정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기독교인 수
2022	27
2021	47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을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국내로 반입되거나 출판된 종교 서적들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개인이 기독교 자료를 소지한다는 것은 기독교로의 회심의 증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는 가족과 문화를 배신한 행위로 간주된다. 기독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사회적 압력, 경제적 제재는 물론 폭력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

가정 영역

무슬림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기독교 개종자의 자녀들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이슬람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개종한 기독교인과 일반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더 넓은 범위의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는데, 이는 박해를 가함으로써 개종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이슬람교로 다시 개종시키기 위함이다.

공동체 영역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이슬람 지도자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포기 시키기 위한 협박을 당한다.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시민들은 정부 관료들과 연합하여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포교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고소하고 감시하며 괴롭힌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

들은 위협, 차별, 적대와 벌금부과 등의 박해를 경험한다. 가장 가혹한 사례는 정부가 주도하는 불시 단속이며 지역 무슬림 정보원들의 첩보를 바탕으로 실행된다.

국가 영역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전국민의 사회-종교적 통합을 이루려는 거대한 국가 조직의 야망과 적대적 활동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종교법은 미등록 종교단체를 금지하고 공교육이 아닌 특정 단체나 개인에 의한 종교 교육을 금지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검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정부여당에 반하는 정치 행위나 정당의 창당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 영역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등록 교회들은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3년마다 복잡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교회 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회들, 특히 개신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건물주들의 심한 적대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법적 의무와 침해된 권리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래와 같은 국제 규약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01.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관한 국제 규약 (ICCPR)

02.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03.유엔고문방지위원회: 잔혹한 고문 및 비인격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0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05.유엔아동권리협약(CRC)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신들의 국제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다음의 기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을 불시 검열하고 교회 성도들을 체포, 협박, 구속하였다.(ICCPR 9조항과 18조항 위반)
- 정부가 기독교인과 교회의 활동들을 엄격하게 감시하였다.(ICCPR 17조항 위반)
-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폭력을 경험한다.(ICCPR 18조항 위반)
- 종교 서적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공식적인 검열과 승인을 받아야한다.(ICCPR 18조항과 19조항 위반)
- 여성 개종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구타, 가택 연금,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위협과 적대를 경험한다.(ICCPR 9조항, 12조항과 18조항 위반)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대교, 바하이교 등 기타 다른 종교들 모두 정부로부터 높은 수준의 감시와 압박을 겪는다. 정부는 특히 국가의 징병제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더 가혹한 박해를 가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거나,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려져, 구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아래와 같은 근본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고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다.

- 성경 및 기독교 서적 배포
- 기도 사역
- 성경 교육 사역
- 어린이/청소년 사역
- 여성을 위한 사역
- 박해받는 교회 변호 및 인식 확대 사역
- 직업 훈련 사역
- 사회-경제적 역량 개발 프로젝트 사역

오직 기도로 이란 감옥에서 살아남다…

이란의 한 크리스천 부부는 감옥에서 심문을 받고 고문당할 때 오직 기도에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수년 동안 지속된 박해로부터 이들 부부를 지켜주었고, 지금 부부의 믿음은 그 어느때보다 굳건합니다.

알리(Ali)와 자흐라(Zahra)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란에서의 수년 간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알리(Ali)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알리의 아내 자흐라(Zahra)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들 부부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정이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곳인 이란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알리와 자흐라가 첫 번째 체포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감옥으로 가는 길에 다른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빛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담요도 없는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교도관들은 저를 심문하고 구타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저를 심문하여 교회에 잠입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알리-자흐라 부부는 풀려났지만, 2년 동안 박해, 학대,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고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라고 알리는 말합니다. 아무도 알리를 고용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학교 등교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의 친구와 가족조차도 부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언제라도 이들 부부가 체포되어 심문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상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던 알리부부에게 한 가지 변화의 이유가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전세계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이 한가지 사실이 부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방법들로 응답하셨습니다.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을 때,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준 것

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입니다."라고 알리는 고백합니다.

자흐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저는 감옥에서의 삶을 결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이 부부는 이란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했고, 현재 터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후원은 가족 전체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알리-자흐란 가족은 박해로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투옥과 고문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 기독교인들의 후원과 기도는 이들 부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알리-자흐란 부부의 믿음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제가 다시 이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택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알리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알리-자흐란 부부와 두 아들 다니엘과 사무엘은 현재 터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알리와 자흐라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다니엘과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 가족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박해의 트라우마로부터 부부를 치유해 주시고 이들 가정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란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한 박해와 적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OPEN HOMES OPEN DOORS

“복음의 문을 위해 박해의 문을 열다”

현장스토리 02

러슬란(Ruslan,가명)*은 중앙아시아에서 16년째 사역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러슬란의 실명과 얼굴은 밝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집에 들일 때마다 박해에 노출되는 위험도 함께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특히 더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것이 중앙아시아 기독교인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박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문을 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곳에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입니다.

러슬란 형제는 평범한 가정의 식탁 테이블 앞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모여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비밀 신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빛납니다.

이곳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크리스천들은 적대와 처벌, 폭력과 살인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슬란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집 문을 열때마다 박해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박해의 파도

이 지역 전역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무슬림들은 이슬람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이슬람을 떠나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며, 가까운 친구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삶은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러슬란 형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박해는 거세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하게 시작해서 점점 거대해지지요.”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슬란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로 지금까지 러슬란 형제는 수년 간 박해를 견뎌왔습니다. 러슬란의 집은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집의 창문이 수없이 파손되었습니다. 러슬란의 딸은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고 무슬림 학생들로부터 염산 테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저희에게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마을의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새로운 기독교인들의 삶을 회생이 불가능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로부터 “당신의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당신은 가축들에게 무슬림의 풀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며, 농사를 위한 농수 역시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생존은 그 자체로 어려움입니다.

초대하기

극심한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건한 신앙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슬란은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박해를 향해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교회의 지도자로 섬긴 러슬란 형제는, 중앙아시아 전역의 박해로 인해 외롭게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닫힌 문 뒤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러슬란은 개종한 신자들을 집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거실과 식탁을 방문합니다. 은밀하게 머물기 위해 러슬란은 눈에 띄지 않는 차를 타고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러슬란은 그곳 공동체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보기에는 차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눕니다.

이는 매우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사역이지만, 이러한 사역적 도움이 없다면 개종한 새신자들은 외롭게 홀로 절망하다 믿음을 잃고 말 것입니다.

러슬란은 용기 있고 헌신된 형제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러슬란 형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응답"

여러분의 도움이 지난 15년 동안 러슬란의 믿음과 사역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러슬란은 "여러분은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첫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 개인적인 삶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오픈도어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오픈도어로부터 가축들을 먹일 풀과 농업용수를 지원받았습니다. 재봉틀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중앙아시아 전역의 비밀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가정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고립된 비밀 신자들은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시편 68:6)

러슬란과 같은 고립된 ㅂ

러슬란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가족입니다. 러슬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와 후원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단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커다란 크리스천 가족의 일원임을 압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이란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보안상의 이유로 오픈도어가 사역하고 있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러슬란은 비밀리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간증을 통해 새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밀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그들의 전부입니다. |사진 ©Getty

러슬란과 같이 고립된 비밀신자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중앙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주세요

• 러슬란의 용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러슬란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러슬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는 무슬림들에게 집을 개방할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 중앙아시아 전역의 고립된 비밀신자들이 전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함께 후원해 주세요.

12만원으로, 박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된 기독교 가정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8만원으로, 러슬란과 같은 용기 있는 지도자를 위한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24만원으로, 고립된 기독교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고립된 채 살아가는 중앙아시아 전역의 박해받는 비밀 신자들의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박해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www.opendoors.or.kr] 또는 아래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책자는 오픈도어선교회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 소책자가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부수만큼 신청해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을 한번 드려 주세요.

사용방법

01. 기도용 소책자를 필요한 부수만큼 신청해 주세요.
02. 교회나 기도모임 상황에 따라 기도할 일정을 세워주세요.
03. 기도 소책자는 주간별 주제와 매일 기도제목, 간증, 기도내용, 성경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4. 기도하는 중에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특별헌금' 순서를 가진다.
05. 오픈도어는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30일 기도'를 지속 반복합니다. 각 기도회 상황에 따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오픈도어 기도모임

...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13장3절)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마다 온라인 기도모임이 진행됩니다.

참여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추가하시거나,
선교회 모바일번호(010-7548-3171)를
저장하시면 줌(Zoom)미팅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오후 5:00
- 대상: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누구나~!
- 방법: 줌(Zoom)온라인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온라인기도모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선교회(02-596-3171/010-7548-3171)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골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 5일 ○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